

오순절 후 열여섯 번째 주일

THE WORSHIP SERVICE OF 16TH SUNDAY AFTER PENTECOST

주후 2024년 9월 8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515 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통일 256)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36 번 시편 90 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 장 “세번 아멘” (통일 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김강석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b>마가복음(Mark) 7:24-37</b>	박은정 집사
찬 양 Anthem	“사랑”	찬양대
설 교 Sermon	<b>“에바다” (Ephphatha)</b>	김일선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더 원합니다”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 353)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파송 찬양 Closing Hymn	286 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통일 218)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리는 자들과 함께 올라”고 말씀하지만,

우리는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무심하게 지나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기적이고, 무기력해졌으며,

우리의 삶은 점점 안일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죄의 유혹 앞에서, 힘 없이 무너졌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믿음과 삶이 하나 되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오니,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 있게 하시고,

매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롬 12:15,12)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막 7:34-35)

“He looked up to heaven and with a deep sigh said to him, "Ephphatha!" (which means, "Be opened!" ). At this, the man's ears were opened, his tongue was loosened and he began to speak plainly.” (Mark 7:34-35)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9/8 (주일)	9/9 (월)	9/10 (화)	9/11 (수)	9/12 (목)	9/13 (금)	9/14 (토)
삼하3	삼하4,5	삼하6	삼하7	삼하8,9	삼하10	삼하11	
고전14	고전15	고전16	고후1	고후2	고후3	고후4	
겔12	겔13	겔14	겔15	겔16	겔17	겔18	
시51	시52-54	시55	시56,57	시58,59	시60,61	시62,63	

2024 말/씀/사/경/회 REVIVAL

말씀사경회①(9/13금 오후7:30)	“선물”(엡 2:8-10)	강사: 허봉기 목사
말씀사경회②(9/14토 오전6:30)	“이웃”(눅 10:25-37)	
말씀사경회③(9/14토 오전8:30)	소그룹 세미나	
말씀사경회④(9/14토 오후7:30)	“평안”(행 12:1-12)	

지난 주일(9/1) 말씀

“그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신 4:1-9)

모세는 오늘 본문(신4:1-9)에 앞서, 먼저 1)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신명기 1 장)과 2)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진멸한 사건(신명기 2장,3장)을 각각 언급했습니다. 즉, 모세가 대표적인 실패의 이야기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와 승리의 이야기 (헤스본 왕과 바산 왕을 진멸한 사건)를 각각 언급한 이유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지?” 에 따라 모든 것은 달라진다는 사실을 전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준행)하는 것만이 (곧) 우리의 살 길이요,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라는 사실을 모세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과 삶의 방향을 상실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야 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본문에서 모세가 언급한 실천적 제안은 (크게) 세 가지인데, 이를 요약하면...

1)첫째, 스스로 삼가하며 우리의 마음을 힘써 지키라는 것이고, 2)둘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즉, 말씀과 항상 함께하라)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3)셋째, 우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 사람들과 다음 세대에게 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곧 규례와 법도)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리라” (신4:1)는 이 준엄한 말씀 앞에서, 우리도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신앙과 삶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